

최낙진 전북대 교수, 유기농업학회 회장 선임

전북대학교 최낙진 교수(동물자원과 학과)가 (사)한국유기농업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1월부터 1년 동안이다.

최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유기 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 서 회원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유기농업학회는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 및 정책 연구와 보급을 통해 국내 유기농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현재 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 그리고 현장 유기농업 실천농가 등의 회원이 참여하여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전통적인 유기농업의 가치실현과 더불어 '지구를 살리는 농업'이라는 학회 비전을 제시하며, "학회원 모두가 재료를 다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임상수의학과에서 반추동물영양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유기농업학회 자연과학분야 편집간사 및 총무이사, 한국축산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 제12회 무주 도전 골든벨 행사 가져

무주군 무주고등학교에서는 제12회 무주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갖고 참여 학생들이 자웅을 겨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실시된 무주 도전 골든벨 행사는 무주군 교육부전협의회가 주최했으며 무주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등학생들의 학력신장으로 무주군 교육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21일 무주고등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무주 도전 골든벨 행사는 무주지역내 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교생 100여명이 참여해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최종적으로 결선에 올라온 무주고 3학년 주진호 학생이 영예의 골든벨 수상자로 확정됐다. 이날 참여 학생들은 사회자의 질문에 답안 판에 답을 작성하고 양손을 자신 있게 들어 올리는 등 진지하게 답안을 풀어 냈던 것이다.

골든벨 문제는 고등학생의 기본지식(상식), 내고장 역사와 전통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갔다. 이날 골든벨 결과 대상과 금상 은상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선 소정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황인홍 군수는 "참여 학생들이 진지하게 문제를 풀면서 답안을 풀어 사전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군이 여러분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을 주고 있다. 미래 무주의 역군으로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예은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려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예은노인복지센터(원장 정태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홀로 생일을 맞는 대상자에게 생신 상을 차려드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 원주군에 따르면 예은노인복지센터는 돌봄 대상자 중 무연고자거나 자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락이 두절 돼 생신을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지원사가 1:1로 생신상을 준비했다.

생신상을 받은 홀몸 어르신은 총 32명이다.

한 어르신은 "자녀들도 이렇게 차려주기 힘들는데,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축하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즐거워했다.

예은노인복지센터 정태원 원장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을 맞아도 쓸쓸히 보내는 경우가 많아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소외된 우리 이웃을 감싸 안을 수 있어 기쁘다"며 "생신상 차려드리는 행사를 통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고 큰 기쁨을 선물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중복기자

"미래 꿈나무들이 더 행복해지길"

김관영 지사, 산타가 되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 전달

김관영 도지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산티클로스로 변신해 미래 전북도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

전북도는 21일 김관영 도지사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도청 직장 어린이집 원생 아이들을 찾아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관영 지사가 직접 지원 자녀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고 싶다고 제안해 이루어졌다.

이날 어린이집 유희실에 모여 즐겁게 캐슬송을 부르던 아이들은 김 지사가 베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인사하자, 깜짝 놀라며 달려 나와 멀리서 찾아온 산타 할아버지를 반겨주었다.

김 지사는 원생 모두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었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등 1일 산타클로버지로서 재미와 감동을 선시켰다.

김 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문했는데, 오히려 아기 천사들이



웃는 얼굴을 보며 평생 제 기억에 남을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며, "미래 꿈나무인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출산·보육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무주서 연말연시 맞아 장학금·성금 이어져

무주군에 연일 이웃사랑 실천이 이어지면서 추운겨울이 훈훈해지고 있다. 무주군 4-H연합회가 21일 지역内在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 원을 무주군 교육발전문화재단에 전달했다.

서수영 회장은 "매년 과제실습포를 회원들과 함께 운영하며 협동심 힘양의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그 결과물로 무주군의 지역内在재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회가 무주 농업발전은 물론 따뜻한 무주를 만드는데 앞장사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4-H연합회는 매년 과제 실습포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이번 해에는 300kg의 서리태 콩을 수확, 협력 수매 및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전량 판매를 완료했으며, 그 판매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어 무주리아온스 클럽과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이 1백만 원과 50만 원의 성금을 각각 무주군에 기탁했다.

무주리아온스 클럽 김장관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추운겨울을 맞아 힘들게 생활하시는 지역内在재 양성을 위해 작은 은정을 베풀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나눔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무주군을 찾은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청소년 대표들은 "소외계층 돋기 풀리마켓 수익금으로 이웃사람을 실천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재단 이사장)는 "매년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귀한 성금과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중화산2동 박봉수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과 함께 동민의 화합을 다지는 '2022 중화산2동 송년의 밤'을 21일 개최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주민에게 도자기·전주시장·전주시의회 의장·국회의원·구청장 표창도 수여됐다.

박봉수 신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민자치 1번지 중화산2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학대·학교폭력 극복' 캠페인, 소외계층 돋기, 가정의 달 초등학생 사랑나눔 행사, 송년회를 비롯한 주민화합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자치 실현에 노력해 오고 있다.

/최아영 기자

전주비전대 채정수 계장, 교육부장관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기획처 채정수 계장이 2022년 고등교육통계 업무 수행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장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채정수 계장은 전주비전대 학사지원처 및 기획처에 근무하면서 강좌, 강사, 교원자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행정 시스템의 개발·보완을 통해 고등교육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도 증진으로 고등교육통계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운영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채 계장은 "우리대학은 빅데이터시스템이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정보통신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통계 등 데이터 기반 업무의 행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립멘, 전주대에 발전기금 5000만원 전달

(주)립멘은 21일 대학 본관 접견실에서 전주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주)립멘 서윤덕 대표, 김성범 팀장과 박진배 총장, 이덕수 총무처장, 곽이구 기획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기금은 대학발전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서윤덕 대표는 "이 기금이 미래를 향한 밝은 희망을 내딛고 있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주)립멘의 소중한 발전기금 전달에 감사드린다.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립멘은 지난 1985년 미국에서 창립 1990년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부패 방지를 위한 산소흡수제·가스 흡수제 등을 해외로 판매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정은성 기자



장수소방서,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수상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은 지난 한 달간 진행한 2022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입상한 학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의 시각으로 보는 화재예방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의 화재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저감 안전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내 8개 초등학교의 139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장수소방서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해 진행한 공정한 심사로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0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소재실 서장은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이 어린이들이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3년에도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성탄절 나눔 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1일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탄절 선물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겨울방학 중 출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의 타국 생활을 격려하고 따뜻한 성탄절 나눔을 위해 태전그룹(대표 오영석)이 봉지마다 300박스를 후원해 이뤄졌다.

베트남 유학생 쯔엉티토아(경영학과 4년)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고향이 아주 그립다. 그때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통해 유학 생활에 힘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영석 대표는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유학생들을 돋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유학생들이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외로이 보낼 수 있는 성탄절을 태전그룹이 따뜻하게 해주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우석대, 재학생 57명에 장학금 전달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2022학년도 2학기 우석챔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재학생 57명에게 558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학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열린 우석챔프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성희 교육혁신본부장과 챔프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우체은(한의학과 2년) 학생이 골드챔프에 올라 1000만 원의 장학금과 챔프 인증서를 받았다.

또 김소현(아동복지학과 4년) 학생 외 3명이 실버챔프에, 천유진(물리치료학과 4년) 학생 외 10명이 브론즈챔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우석챔프는 △기본소양과정 △경쟁력강화과정 △전문화과정 등 3개 과정 12개 활동영역으로 구성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획득한 미يل리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